제5장

근현대 중국 유학 연구

류희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유학 연구와 관련된 중국의 근·현대 시기에 발표된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근·현대 중국 유학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살펴봐야겠다. 일반적으로 근대 중국철학은 본격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 신문화 운동까지를 말한다. 현대 중국철학은 1923년 과현논전(科玄論戰)부터 현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아편전쟁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의 중국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의 2021년도 근·현대 중국 유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32편으로 학위논문은 없고, 모두 연구 논문들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2020년 16편, 2019년 10편, 2018년 4편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아울러 엄복·강유위 등 근대화의 기초를 위해 노력한 학자부터 현대 신유학을 개창한 웅십력, 그리고 그 대표자인 모종삼, 중국철학사로 유명한 풍우란 등등 연구 인물과 주제들이 매우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32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지연	장태염의 유가 비판	인문사회21 제12권3호 (2021.6)	아시아문화학술원
2	김봉곤	중국근대유학의 이상사회론 –『대동서』와 『신중국미래기』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28호(2021.6)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103집(2021. 겨울)	범한철학회
4	김제란	웅십력의 부파불교 극미론에 대한 인식과 비판	문화와융합 제43권 2호 (2021.2)	한국문화융합학회
5	김제란	중국 근대불교에 미친 베르그송 철학의 영향	한국불교학 제98집 (2021.5)	한국불교학회
6	김제란	중관학(中觀學)에 대한 웅십력의 비판과 논쟁	한국교수불자연합회학회지 27권 2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7	김제란	한·중 근현대불교의 서양철학 수용과 비판	선문화연구 31집 (2021.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8	김현주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에 입각한 양계초의 세계주의	정치사상연구 제27집 1호 (2021.봄)	한국정치사상학회
9	김현주	근대 지식인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중첩적 인식: 후스(胡適)의 자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집 4호 (2021)	인문사회21
10	박승현	牟宗三의 儒學觀과 그 현대적 의의 –'인간다움'의 실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양명학 제63호(2021.12)	한국양명학회
11	박영미	근대 전환기 중국의 문명 인식과 '天' '國' 관념 –담사동과 엄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7집 (2021.1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2	박영우	웅십력 '내성외왕'론의 혁명성: '체용불이'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과예술 제11호 (2021.12)	인문예술학회
13	소진형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동아시아적 번역과 번역의 연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과 중국의 『법의 정신』 번역서의 정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0권 2호 (202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4	양조귀, 조은상	論錢穆對漢代『春秋』學的研究	중국학보 97권(2021.8.)	한국중국학회
15	윤지원	20세기 중국 지식인의 문화관 –錢穆의 文化哲學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2집(20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6	윤지원	하린(賀麟)의 문화철학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2021.9)	한국유교학회
17	이명수	동아시아 근대전환기 만물일체 사유의 전개–최한기와 담사동의 기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6호(2021)	동양철학연구회
18	이상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2집(2021.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	이연승	胡適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	중국학보 제98집(2021.11)	한국중국학회
20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감성 체계 변화에 따른 개혁 담론	21년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중인문학회
21	이영란	청말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감정과 공감 개혁–탄스퉁(譚嗣同)의 『인학(仁學)』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1호(2021)	한중인문학회
22	이재령	신문화 운동기 중국 지식인의 종교논쟁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2021.12)	중국근현대사학회
23	이지영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번역가 고찰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嚴復)의 『천연론』 번역 실천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2권 2호(2021. 여름호)	한국번역학회
24	조남호	모종삼의 미발체인설과 이발찰식설 비판	동서철학연구 제101호(2021.9)	한국동서철학회
25	조덕제	三民主義와 三均主義에 나타난 民 의식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5집(2021.11)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6	陳亦伶, 김은영 옮김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제10호(2021.6)	인문예술학회

27	진종원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 일고찰 –『논어주(論語注)』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47집(2021.1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28	천병돈	韓譯本『중국철학사』비교 연구 –유가 서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101집(2021. 여름)	범한철학회
29	최병욱	5·4운동 시기 陳獨秀의 기독교 인식 변화	인문과학연구 제69집(20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	곽연우	中國淸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	퇴계학논총 제37집(2021.6)	퇴계학부산연구원
31	하주형	馮友蘭의 新理學과 '抗戰期的' 의미 –『新事論』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55집(2021.6)	동양사학회
32	한성구	"문제와 주의" 논쟁의 철학적 토대와 의의 –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2021.9)	한국동서철학회

위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인 인물과 주제들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다채로운 주체로 연구가 진행되어 특정한 주제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려 한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13명의 학자와 서양철학 관련논문, 그리고 기타를 포함해 모두 15개로 구성된다. 인물별 분류는 출생 연도의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 엄복(嚴復, 1854–1921)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지영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번역가 고찰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嚴復)의 『천연론』 번역 실천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2권 2호 (2021. 여름호)	한국번역학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엄복은 근대 중국철학의 시점이 되는 철학자이다. 그는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영국의 조선술을 배우러 영국으로 파견된 국비유학생이다. 그러나 그는 조선술 등의 과학기술이 서양의 근대화를 이룬 원인이 아니라 사회진화론과 같은 사상이라는 점을 깨닫고 귀국 후 번역작업을 시작하였다. 위의 논문에서 다루는 『천연론』은 바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라는 사회진화론인데, 이것은 무자비한 자유경쟁과 적자생존을 강조하여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 심화된 영국의 사회갈등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반대해서 나온 책이다. 이 밖에 서양 근대화의 이론적 근거가 된 『국부론』·『자유론』·『법의 정신』 등을 번역·소개하여 중국 계몽의 물결을 연 선구자이다. 특히,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민의 지혜(民智)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교육입국(教育立國)을 강조했다.

국내의 엄복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양일모 교수가 있고, 『천연론』과 『진화와 윤리』가 모두 번역·출판되었다. 엄복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2020년 2편, 2019년 2편, 2018년 1편, 2017년 1편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2) 강유위(康有爲, 1858–1927) :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봉곤	중국근대유학의 이상사회론 –『대동서』와 『신중국미래기』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28호(2021.6)	영남퇴계학연구원
2	감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103집(2021. 겨울)	범한철학회
3	陳亦伶, 김은영 옮김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제10호 (2021.6)	인문예술학회
4	진종원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 일고찰 –『논어주(論語注)』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47집 (2021.1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동서』라는 이상사회론을 제기한 강유위는 철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중국의 선각자이다. 강유위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전반서화파와 달리 중국 전통에 근거해 서양문물을 수용하자는 중체서용(中體西用)적 입장을 취한다. 근래에는 강유위의 생각이 중·서 문화의 융합을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유위에 관한 연구 업적은 2021년의 4편을 포함해 2020년 6편, 2019년 6편, 2018년 4편, 2017년 10편으로 매우 많다. 이러한 많은 연구는 아마도 그의 저작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과 철학 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담사동(譚嗣同, 1865–1898)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영미	근대 전환기 중국의 문명 인식과 '天' '國' 관념 – 담사동과 엄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7집(2021.1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	이명수	동아시아 근대전환기 만물일체 사유의 전개–최한기와 담사동의 기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6호(2021)	동양철학연구회
3	이영란	청말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감정과 공감 개혁–탄스통(譚嗣同)의 『인학(仁學)』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1호(2021)	한중인문학회

『인학(仁學)』으로 유명한 담사동에 관한 연구는 2020년 1편, 2019년 1편, 2018년 1편으로 많지는 않으나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손문(孫文, 1866–1925)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덕제	삼민주의와 삼균주의에 나타난 民 의식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5집(2021.11)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911년 신해혁명을 주도하고 중화민국을 창설한 손문은 삼민주의로 유명하고 대만과 중국에서 모두 존중받는 혁명가이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부(國父)로 추앙되며, 그의 삼민주의를 실제로 정치이상으로 삼고 실현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요즘에도 손문의 삼민주의에 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대학교에는 대학원에 삼민주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과도 개설되어 있다.

국내에선 위의 논문과 같이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삼민주의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는 2018년에만 4편의 연구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5) 장태염(章太炎, 1868–1936)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지연	장태염의 유가 비판	인문사회21 제12권3호 (2021.6)	아시아문화학술원

장태염은 손문과 함께 혁명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장자의 「제물론』 해석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1편, 2017년 1편의 성과가 있을 뿐이다.

6) 양계초(梁啓超, 1873–1929)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현주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에 입각한 양계초의 세계주의	정치사상연구 제27집 1호 (2021.봄)	한국정치사상학회
2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감성 체계 변화에 따른 개혁담론	21년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정치사상학회

근대 중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양계초는 강유위의 제자로

서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명성과 영향이 컸던 정치혁명가이자 철학자이다. 그의 스승인 강유위의 '세계주의'와 달리 '국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낙후된 원인은 혈연에 의한 '부민(部民)'단계에 머물러 국가의식이 없기 때문이며, "국민(國民)'으로 거듭 나야 근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신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신민설(新民說)』 뿐만 아니라, 근대 중국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이 있다. 이 책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길에 1차 세계대전의 폐해를 목격하고 쓴 유럽 여행 감상기이다. 양계초는 이 책에서 전쟁의 참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추종하던 과학만능에 대해 "과학은 파산했다"라고 선언하며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양계초의 영향 하에 이후 중국의 학술계는 중국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23년의 과현논전(科玄論戰)으로 이어져 현대신유학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 박은식 등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가 서술한 『조선망국사략(朝鮮亡國史略)』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대학술개론』·『중국근삼백년학술사』 등은 청대 철학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공헌과 영향에 비해서 국내의 연구 성과는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국내 성과에는 2021년 2편, 2020년 4편, 2019년 2편, 2018년 2편, 2017년 6편이 있다.

7) 진독수(陳獨秀, 1879–1942)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병욱	5·4운동 시기 陳獨秀의 기독교 인식 변화	인문과학연구 제69집(20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진독수는 이대조와 함께 1921년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맑시스트이다. 그러나 맑시스트 이전에 진독수는 서구문명에 대한 전반서화파(全盤西化派)로서 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북경대학교 문과대학장으로 초빙되어 5·4신문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호적(胡適)과 함께 『신청년』 잡지를 통해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온 몸을 던진 지식인이며, 이후 자유주의로 나간 호적과는 길을 달리해 사회주의로 나갔다. 또한 과현논전에서 호적과 함께 과학주의를 대표하였다.

진독수는 아마도 중국 근대화 혁명에 참가한 인물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모택동 등 사회주의자들에게 수정주의라고 탄압을 받았지만, 두 아들도 사회주의 혁명에 희생됐듯이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는데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래에 복권되어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의 저작은 여러 연설문과 잡지에 실은 글들을 모은 『독수문존(獨秀文存)』이 있다.

중국에는 진독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성행하지만, 국내에는 2019년에 2편이 있을 뿐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근래에 『천두슈 사상선집』이 번역·출간 되었다.

8) 웅십력(熊十力, 1885–1968)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제란	웅십력의 부파불교 극미론에 대한 인식과 비판	문화와융합 제43권 2호 (2021.2)	한국문화융합학회
2	김제란	중관학(中觀學)에 대한 웅십력의 비판과 논쟁	한국교수불자연합회학회지 27권 2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3	박영우	웅십력 '내성외왕'론의 혁명성: '체용불이'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제11호 (2021.12)	인문예술학회

웅십력은 현대신유학의 개창자로서 그 대표자인 당군의·서복관·모종삼의 스승이다. 그는 젊은 시절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한 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이라고 깨닫고 학문연구에 힘썼다. 그리고 시대적 과제인 과학과 민주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학문인 유학의 '외왕'이며, 이것은 중국문화의 본질인 공자·맹자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변질되어 계승되지 못한 공맹의 도(道)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이처럼 중국전통에 근거하여 근대화를 이루려는 중체서용적 시도는 이른바 현대신유학의 시작이 되었다.

웅십력에 관한 연구는 대만과 홍콩, 중국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편, 2019년 1편, 2018년 1편 등 지금까지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 50여 편의 연구 성과가 있다. 또한 웅십력의 주저인 『신유식론(新唯識論)』과 『원유(原儒)』가 번역·출판되었다.

9) 호적(胡適, 1891–1962)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현주	근대 지식인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중첩적 인식: 후스(胡適)의 자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집 4호 (2021)	인문사회21
2	이연승	胡適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	중국학보 제98집 (2021.11)	한국중국학회
3	한성구	"문제와 주의" 논쟁의 철학적 토대와 의의 –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9)	한국동서철학회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존 듀이에게 실용주의를 사사(師事)한 호적은 젊은 나이에 북경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당시 문과대학장인 진독수와 『신청년』 잡지에 참여하며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힘쓴다. 아울러 진독수와 함께 과현논전의 과학주의 노선에 서서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실용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새로운 글쓰기 방법으로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1919)을 서술했다.

호적은 중국 최초의 '자유주의자'라고 불리 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륙과 대만의 장개석 정부에서도 끝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북경대학교 총장과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국내에 일찍이 호적의 철학사가 『중국고대철학사』(1962)라는 이름으로 번역·출간되어 많이 알려졌으며, 민두기 교수의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호적의 사상과 활동–』(1996)이라는 저술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이처럼 호적은 국내 학술계에 매우 익숙한 인물로서

그에 관한 연구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2020년 2편, 2019년 4편, 1918년 2편, 2017년 1편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10) 풍우란(馮友蘭, 1894–1990)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하주형	馮友蘭의 新理學과 '抗戰期的' 의미 –『新事論』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55집 (2021.6)	동양사학회
2	이상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2집 (2021.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풍우란은 국내에 일찍이 그의 철학사가 번역·출간되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존 듀이에게 실용주의를, 그리고 월리엄 몬태규에게 신실재론을 사사(師事)하였다. 하지만 풍우란은 신실재론의 영향을 더 받아 귀국 후에 김악림(金岳霖)과 함께 청화대학교에서 신리학(新理學)을 철학체계를 주장했다.

풍우란은 철학사로 유명하지만, 사실상 그의 대표저작은 멸망의 위기에서 부강한 나라로 일어나야 한다는 염원이 담긴 『정원육서(貞元六書)』이다. 그 중에서 『신리학(新理學)』은 자신의 철학체계를 보여 주는 대표작이다. 『신원도(新原道)』는 오래 전에 곽신환 교수에 의해 번역·출간되었고, 최근에 신정근 교수에 의해 『신원인(新原人)』이 번역·출간되었다. 풍우란에 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2020년 1편과 2017년 2편으로 명성에 비해서 그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 전목(錢穆, 1895–1990)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양조귀 조은상	論錢穆對漢代『春秋』學的研究	중국학보 97권(2021.8.)	한국중국학회
2	윤지원	20세기 중국 지식인의 문화관 –錢穆의 文化哲學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2집(20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전목은 『주자신학안(朱子新學案)』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상 철학자라기 보다는 저명한 역사학자이다. 하지만 그는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저작을 내었으며, 근래에는 그의 애제자인 여영시(余英時)에 의해 세계적으로 명성이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전목에 관한 논문은 2021년의 2편 이외에 2017년 이후부터 검색되는 것이 없다.

12) 하린(賀麟, 1902–1992)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윤지원	하린(賀麟)의 문화철학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2021.9)	한국유교학회

하린은 양계초의 제자로서 하버드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학자이며,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에 의해 육왕심학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는 중국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논리 주체'를 이해하지 못해 '인식 주체'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논증을 결여한 직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인식 주체에 이르

지 못하고 오직 도덕 주체에만 머물러 근대적 지식체계, 즉 과학과 민주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논리적 마음이 곧 리이다(論理心卽理)"라고 주장하며 육왕심학의 지행합일론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신유학에서 신리학과 대비되는 신심학(新心學)의 계열에 속하게 된다. 신심학은 웅십력·모종삼이고, 신리학은 풍우란·김악림이 대표자이다.

국내에는 하린 연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3편, 2018년 2편, 1017년 2편 등으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모종삼(牟宗三, 1909–1995)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승현	牟宗三의 儒學觀과 그 현대적 의의 –'인간다움'의 실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양명학 제63호(2021.12)	한국양명학회
2	조남호	모종삼의 미발체인설과 이발찰식설 비판	동서철학연구 제101호(2021.9)	한국동서철학회

모종삼은 명실상부한 현대신유학의 대표 학자이다. 그는 웅십력의 애제자로서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웅십력은 그의 저명한 세 제자(당군의·서복관·모종삼)의 활약으로 인해 '현대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운동이 일어나고, 그 명성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모종삼은 칸트를 중심으로 삼아 유학을 재해석하므로써 중국 유학의 '철학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전통 유학의 내성(內聖)에서 어떻게 신외왕(新外王), 즉 과학과 민주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철학작업을 죽기 전까지 하였다. 그의 영향력과 학문적

성취는 임종 전에 스스로 "고금무량(古今無兩)"이라고 했듯이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모종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80여 편에 이르며, 근래에는 이전보다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20년에는 1편, 2019년 1편, 2018년 1편, 1017년 2편이 있다. 그의 저작은 모종삼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작으로 뽑을 수 있는 『심체와 성체』가 국내에 완역되어 출간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번역·출간되었다.

14) 서양철학 관련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제란	중국 근대불교에 미친 베르그송 철학의 영향	한국불교학 제98집 (2021.5)	한국불교학회
2	김제란	한·중 근현대불교의 서양철학 수용과 비판	선문화연구 31집 (2021.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3	소진형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동아시아적 번역과 번역의 연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과 중국의 『법의 정신』 번역서의 정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0권 2호 (202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인물별로 분류되지 않는 논문 중에서 서양철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3편이 있다. 웅십력 연구자로서 그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김제란 교수의 베르그송과 서양철학의 영향에 관한 논문이 눈에 띈다.

15) 기타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재령	신문화 운동기 중국 지식인의 종교논쟁	중국근현대사 연구 제92집 (2021.12)	중국근현대사 학회
2	천병돈	韓譯本『중국철학사』비교 연구 –유가 서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 101집(2021. 여름)	범한철학회
3	소진형	中國淸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	퇴계학논총 제37집 (2021.6)	퇴계학부산연구원

인물로 분류되지 않는 논문 중에서 위의 세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국내에 출간된 중국철학사를 비교·연구한 천병돈 교수의 논문이 이채롭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2021년에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32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32편의 논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겠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32편의 연구 성과 중에서 철학적으로 이론적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 논문을 선별해서 살펴보겠다.

(1) 진종원 :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 일고찰 –『논어주(論語注)』를 중심으로–

강유위의 철학은 공자의 '인(仁)', 장재의 원기(元氣)에 근거한 사해동포주의의 영향하에 건립되었다고 널리 알고 있다. 하지만 묵가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점은 매우 이채롭다. 이 논문은 주희로 대표되는 송학(宋學)과 묵가와의 비교를 통해 강유위의 본성·인욕과 ·박애·공리 등의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강유위의 '본성'을 송학이나 묵가와 달리 도덕적인 규정이 배제된 자연적 조건인 지각개념으로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송학과 묵가를 비판하고,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즉 공리성이 도덕적 덕목인 인과 박애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대동사회의 목표는 모든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필자는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지만, 아홉 가지(九界)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세계주의'와 세계시민(天民)을 강조하는 강유위의 입장에 정합하는지는 재차 성찰해 볼 여지가 있다.

⑵ 강지연 : 장태염의 유가 비판

필자는 이 연구가 문헌분석 방법론을 통해 중국 사상가 장태염의 유가 비판 사상에 대해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장태염은 존 로크의 경험론이 독단주의·권위주의 타파와 연결된다는 정치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맹자의 성선설이 가지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성무선무악적 관점의 이론을 분석했다고 한다. 장태염은 이러한 동서철학의 비교 작업을 통해서 유가의 인성론을 비판하였다. 또한 죽음에 관한 관점에서 유가의 지향점은 불가와 대치된다고 장태염은 말했다. 불가의 열반이론이 독특한 사유 체계와 독특한 수련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다면, 삶과 죽음의 갈래 길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도의에 대한 선택일 수 있고, 생명이 가져야 할 존엄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유가의 체계라는 것이다. 필자는 장태염의 철학이 인성론·본체론·사생론(死生論)을 통해 전통 철학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⑶ 박영우 : 웅십력 '내성외왕'론의 혁명성: '체용불이' 개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웅십력이 『원유』를 통해 보여준 내성외왕론에서 제시된 현대적 과제의 의미에 주목하고, 그의 내성외왕론의 성립이 '체용불이(體用不二)' 등 그의 '불이'의 철학적 논리를 통해 입증되는 사유과정을 추적하면서 그것이 지닌 개념적 특징과 성패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필자는 크게 두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웅십력은 내성외왕론에서 내성론은 전통 사상의 '천제(天帝)'와 같은 종교적·미신적 근원 개념을 철폐하는데, 이와 더불어 송명리

학의 '리' 개념 또한 전제주의 체제의 지배질서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웅십력의 외왕론은 모든 계급적 지배질서를 혁파하여 '태평세'로 명명되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데 최종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가적 입장에서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웅십력의 내성외왕론은 혁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필자는 말한다.

(4) 한성구 : "문제와 주의" 논쟁의 철학적 토대와 의의 –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제와 주의 논쟁(問題與主義之爭)'은 5·4 신문화 운동시기에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은가,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나은가를 둘러싸고 실용주의자 호적과 사회주의자 이대조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이다. 표면적으론 "어떻게 중국을 개조할 것인가"라는 것이 논쟁의 중심주제였지만,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외국의 학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논쟁 쌍방의 주요 인물이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면서 '문제와 주의' 논쟁은 정치 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적·사상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쟁을 살펴보았다. 즉, 본 논쟁이 단순히 정치적 영역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전통철학이 현대철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질주의에 대한 신지식인의 비판과 극복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5) 이상화 :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필자는 논문의 목적을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풍우란의 철학에는 단절성과 연속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본 논문은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단절성의 원인은 1949년 이후에 풍우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비판 내용을 보면, 풍우란 저작에 대한 계급성과 풍우란 철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풍우란은 자신의 부르주아 계급성과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중국의 지성계는 기존의 철학 혹은 중국철학에 대해 인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그에 맞춰 풍우란 사상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연속성의 원인은 먼저 풍우란의 신실재론이 유물론과 내적·형식적으로 친화적이었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신실재론은 보편 논리의 실재성을 강조하고, 사적 유물론은 역사발전 법칙의 실재성을 인정한다. 풍우란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의 변화가 어렵지 않았다. 자신이 주장하던 '보편성(共相)'이 철저하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고려하면 유물론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중국에서 강조된 변증법도 풍우란의 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변증법을 통해 풍우란은 기계적 유물론에서 벗어나 자기 사고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6) 윤지원 : 20세기 중국 지식인의 문화관 –錢穆의 文化哲學을 중심으로–

국내에 국학대사(國學大師)로 추존되는 전목에 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 이렇듯 국내에서 잘 연구되지 않는 분야를 윤지원 교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필자는 문화관을 중심으로 전목 선생의 동·서 문화에 대한 태도와 서세동점에 대한 입장을 보려는 듯하다. 그는 우선, "그 어떤 사회의식 형태든 사회적 존재의 산물이며 문화철학의 탄생과 형성 그리고 발전은 특정한 사회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히는 전목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관은 전목이 역사적 고찰과 철학적 사상을 결합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철학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목은 문화란"점진적인 발전의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그룹의 삶"이라고 정의하며, 문화를 세 종류로 나누고, 인류 생활의 다양한 형태를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문화의 3 유형'과 '7 요소'라고 불렀다.

전목은 문화와 문명의 관계 그리고 문화를 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중국문화의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의 시야에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제기한다. 그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경제적 특징과 자연환경이 동·서 문화의 본질적 차이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문화는 내경적 농경문화이고, 서양문화는 외경적 상업문화라고 한다. 전목의 문화철학 체계와 중·서 문화에 대한 비교는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며, 미래 문화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이 논문은 논증적인 것이 아니라, 전목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 조남호 : 모종삼의 미발체인설과 이발찰식설 비판

조남호 교수의 논문은 2021년 근·현대 중국 유학과 관련된 32편의 성과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로 모종삼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모종삼은 이통의 미발기상체인과 호굉의 이발찰식을 초월적 역각체증과 내재적 역각체증이라고 나누었는데, 이러한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두 선정(定心)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발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좌하여 정심상태에서 염두의 발동과 유전(流轉)을 살피는 것이 찰식이고, 더 나아가 염두가 발동하지 않아 염두에 대한 어떤 감정조차 발동하기 이전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미발기상체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모종삼은 호굉의 이발찰식을 내재적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심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발찰식은 정심상태에서 염두와 감정이 발동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불교의 염주(念住) 공부는 참선의 정심상태에서 미발과 이발 모두 염두가 일어날 때 염두의 현행을 멈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과 사유가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종삼이 주희의 도남학과 호남학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역각체증, 즉 초월적 체증과 내재적 체증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호굉과 이통을 주희와 다른 사유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4.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2021년도 국내에서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32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정리하고 7편의 논문을 선택해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근래에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청대의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생각이나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근·현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청대 유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근·현대 연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대신유학의 신심학, 즉 하린·모종삼 등의 연구가 많은 반면에 신리학 계통의 김악림·풍우란 등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육왕심학을 중시하는 웅십력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연구는 복잡다단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아울러, 맑시즘을 추종하는 진독수와 이대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중국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지금의 중국사회 및 정치 등등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부단히 유전하는 세계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